

貿易과 投資의 相關關係 分析:⁽¹⁾ 韓中 貿易收支 論爭을 中心으로

鄭 永 祿

中國經濟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서 인근 국가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가장 단순한 것이 韓中 間 交易收支 黑字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한중 간의 교역은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와의 교역과는 판이하게 直接投資에 의해서 유발되는 측면이 강하게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양국 간의 교역수지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하되, 貿易과 投資와의 相關關係를 보다 더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논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변화 방향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한중 간 교역수지는, 현재의 業種別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10년 정도의 중기에도 우리의 黑字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대중 직접투자가 중국내 市場指向型과 資金의 比較優位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실증적 분석의 결과로서 더욱 더 뒷받침될 수 있었다. 즉, 중국의 경제적인 신장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대중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그 결과 한중 간의 교역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우리경제의 開放化는 예상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거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 序 論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서 국내소비 및 투자의 상대적인 부진 속에 해외소비 및 투자의 활기, 국민전체의 경제 도약 및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의 총체적인 不景氣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소득 10,000달러 달성 이후의 피로감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中國의 경제적인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분석하는 편도 있다. 그래도 對中 貿易收支가 黑字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버티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40여만 명에 달하는 青年失業問題⁽²⁾가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고

(1) 본 논문은 修巖獎學文化財團("SUAM FOUNDATION")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단, 2004년 8월에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체 및 중소기업체들을 방문하여 이들로부터 얻은 1차적인 면담결과를 토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싶었던 필자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2)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2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8.6%인 것으로 집계되

있는 현실로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인 논구 및 처방의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韓中 貿易收支의 赤字 기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지?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처럼 産業空洞化에 따라서 한중 무역수지가 역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최근 中國과 韓國 間의 交易은 세계무역 역사상 유례없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은 수교하던 1992년에는 50.3억 달러(수출 26.2억 달러, 수입 24.1억 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2004년만 하더라도 양국 간 교역은 총 900.7억 달러(우리의 대중 수출 622.5억 달러, 대중 수입 278.2억 달러)로 韓中 修交 이후 만 12년 만에 무려 17.9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2005년에 양국 간 교역은 1,000억 달러의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즉, 수교 13년 만에 교역 1,0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판단⁽³⁾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전체 교역이 1992년 1655.3억 달러에서 2004년 1조 1547.9억 달러로 12.8배 증가한데 비해, 우리의 대중 교역이 17.9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兩國 間 交易의 증가속도가 中國의 對外交易 증가속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 교역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中國恐怖論(China Shock, China Phobia)이다. 즉, 한중 양국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靜態的으로는 우리에게 수지 흑자를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업체들이 중국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우리나라의 원, 부자재를 수입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對中 輸出도 늘고, 中國의 對外 輸出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대중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결국 動態的으로는 국내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의 확대와 무역의 활성화가 결과적으로는 産業空洞化를 야기하게 되고 길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고 있으며 구직활동 단념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감안한 실질청년실업률은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즉, 20대인 20~29세의 실업자 수는 41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 (3) 이는 중국과 일본이 교역 1,000억 달러 돌파에 30년이 걸렸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흥미롭다. 일본은 1972년 수교한 바 있는데, 수교 30주년이 되는 2002년에 양국 간 교역 1,000억 달러를 돌파(1,019억 달러)하였다. 물론 수교 기간이 길었다고 교역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한 시기가 1978년이었고, 본격적으로 중국의 노선이 확립된 것은 1992년 이후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92년 이후의 속도를 보더라도 우리의 대중 교역이 훨씬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저해하게 되리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정영록·이종진(2004)은 달러로 표시한 우리나라의 國內 設備投資의 총액이 IMF 관리 체제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중국과의 製品競爭力 격차가 아주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설비 수입→제품생산 및 설비구입상환대금 창조→부가가치 창출의 고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표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설비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附加價值 創出의 선순환의 고리를 중, 장기적으로 단절시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 중국의 catch-up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한중간의 產業隔差를 5년 이내로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더 심각하게 인식⁽⁴⁾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中國機會論(China Dream)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적인 발전의 격차는 적어도 1人當 所得의 隔差(한국 14,000달러 대 중국 1,300달러)만큼이나 나고 있고, 따라서 과거 및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중국이 발전할수록 원, 부자재를 우리나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 최근의 한 논의에 따르면 양국 간 競爭力 隔差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⁵⁾도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기본적인 관심은 첫째, 韓中 間 交易收支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둘째, 이것이 韓中 間 投資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華東地域을 답사하였으며 초보적이거나 일관된 統計資料 데이터를 구축, 이를 回歸分析에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2장에서는 貿易과 投資 關係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3장에서는 한중 교역수지의 향후 추이의 推定을, 4장에서는 교역수지의 추이를 한중 관계의 統計資料를 중심으로 분석한 무역과 투자 관계의 결과를 반영해서 적어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수치 추이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4) 가령 이러한 논지는 산업기술재단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업계 및 단체의 주장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5) 이두원·김완중(2005)에 따르면 한중 간의 소득 수준에 의한 경제격차가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199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년의 소득격차가 있었음에 비추어 한중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貿易과 投資의 一般 關係

2.1. 學術的인 論議

貿易과 投資의 相關關係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政治經濟學的 해석으로 海外直接投資가 학문의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 하였다. 대체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정치적 또는 이론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받아들여진 시기가 얼마되지 않는다. 즉, 상당히 근세까지 직접투자는 제국주의의 개발도상국 착취의 방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 결과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가 統計의 부족이다. 상기 첫 번째 요인과의 연관성이 있겠지만 일반의 直接投資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니 자연히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통계적인 추적 등이 상대적으로 貿易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무역에서의 DOT(Direction of Trade)와 같이 정치하고도 표준화되었으면서도 일반화된 FDI통계는 태부족인 듯하다. 그나마 UNCTAD에서 집계하는 거시적인 통계 또는 OECD국가 간의 FDI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UNCTAD 통계⁽⁶⁾도 time-series나 業種別(sector-specific) 집계에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통계자료 획득의 문제로 인해서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에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무역과 투자를 입지와 관련해서 重力모델(gravity model)을 원용해서 분석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통념상의 한계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무역과 직접투자를 이론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國際經濟學 교과서에서도 要素의 移動으로 간단히 처리⁽⁷⁾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반면에 국제경영학 교과서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의 실체로서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특히 국제경영학 영역에서는 직접투자에 대한 동기에 대한 논

(6) World Investment Report는 대체로 국가별 거시자료를 집계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며 업종별(sector specific) 투자분계 등은 절대적으로 빈약하기 그지없다.

(7) Krugman and Obstfeld(2003)에서는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11개 장 가운데 '국제요소이동'이라는 독립된 한 장의 한 절로 기술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또한 Caves and Jones(1985)에서도 국제무역과 관련된 총 14장 가운데 한 장으로 시술하고 있는 것은 Krugman and Obstfeld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이는 경제발전론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Gillis and Roemer(1996)에서도 총 20개 장 가운데 '외국자본'의 장에서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의가 일반화되어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를 일반적으로 해당국의 내수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市場指向型 投資와 해당국의 저렴한 생산 조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費用節減型(또는 수출지향형) 投資로 나누고 있다[OECD(2000, p. 11)].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지향형 투자가 비용절감형 투자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임도 밝히고 있다[Markusen and Maskus(2001), Blonigen *et al.*(2003)]. 따라서 직접투자는 투자상대국의 經濟規模(즉 시장규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arkusen(1995)과 Lipsey(1999, 2001) 등은 대부분의 FDI 흐름은 주로 先進國 間 投資임을 지적하고 있다.

市場指向型 投資는 水平的(horizontal) 直接投資라고도 불리는데, 높은 무역비용과 규모의 경계를 가정할 경우, 대부분의 투자는 경제발전 정도가 유사한 국가 간에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수평적 직접투자모형의 주요 논지이다. 즉, 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에서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며 각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그 地域市場(local market) 내에서 판매된다고 한다[Brainard(1993)].

한편, 費用節減型 投資는 垂直的 直接投資模型으로 國際的 要素價格의 차이에 의해서 투자가 발생하며, 양국 간 요소가격 차가 클 경우 기업은 공장과 본사를 양국에 배치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elpman and Krugman(198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근까지 큰 지지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서 開發國으로의 투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개도국 간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다양화되었다. 특히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Hanson *et al.*(2001)은 최근 들어 많은 부분의 직접투자가 요소가격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비용절감형 투자의 부상을 언급하고 있다. 동아시아 내의 일본, 대만의 對中 投資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점은 Fung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⁸⁾

한편, 韓中 貿易-投資 關係 연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즉,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학술적인 연구의 시도들이 있었으나, 현상의 기술에 그치거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해서 데이터를 연장시킨다든지 또는 기업의 규모차이에 의한 지분차이 등의 1차원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좀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한중 간의 교역은 단순히 투자, 무역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전통적으

(8) 그런데 똑같은 연구자들인 Fung *et al.*(1999)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보다 중요한 투자 동기로 삼고 있고 이를 입지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직접투자의 동기를 일반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로 국경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貿易이 投資를 대체한다는 리카르디안적인 분석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즉, 交易과 要素移動을 결합시킨 보다 복잡다기한 현지투자 형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학술적으로 논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對中 投資 決定要因에 있어서 內需市場은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며, 가공 무역과 국제적 생산기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조건들이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고 주장된다. 또한 *Fung et al.*(2002)도 한국의 대중 투자에 대해 내수시장 관련 변수는 거의 아무런 유의성을 갖지 못하며, 양질의 勞動力이나 경제특구와 같이 投資費用을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변수들만이 유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의 투자 전략 역시 비용절감형 투자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김익수(1999), 김주영(2002)).⁽⁹⁾ 이들은 주로 한국의 對中 投資가 費用節減型 위주에서 市場指向型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령, 2004년 이후 중국에 진출하여 상당히 시장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 흡소평의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의 시장이 신장되는 것에 대응해서 중국에 진출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이들의 논의도 무역과 투자의 실증적인 논의나, 보다 과학적인 체계의 논문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것을 業種別로 파악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즉, 기존의 연구로는 무역과 투자 관계의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무역수지를 좀 더 정치하게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상당한 정도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2.2. 現地 韓國投資業體 面談⁽¹⁰⁾을 통한 貿易-投資 關係

우리는 2004년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상하이 인근 화동지역 진출 우리나라 24개 業體를 방문하여 中國 進出에 대한 세세한 질의를 위주로 한 면담을 가졌다. 여기서 주요한 질문은 첫째, 왜 화동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는지, 둘째, 主力 市場이 어디인지? (內需, 輸出, 수출이면 우리나라로의 逆輸入인지 아니면 제3국 수출인지 등을 포함), 셋째, 한국과 중국 간의 역할 분담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이었다. 우선, 대상 기업체 24개는 10개 大企業體와 14개 中小企業體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전자 및 부품이 10개사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화학 4개사, 완구 1개사, 건축자재 1개사, 신발 1개사, 섬유(실크

(9) 지만수 외(2004), 이홍식 외(2004) 등도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10) 2004. 8.7~21 기간으로 중소기업체관계자는 물론이고 현지 한국상회 총무이신 이은희씨의 도움이 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附表>를 참조.

가공포함) 2개사, 피혁 1개사, 안경 1개사, 포장재 1개사, 철강 1개사, 자동차부품 1개사 등으로 분포되었다. 이들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을 정리할 수 있었다.

우선, 이들 업체들의 진출 의도는 유관 대기업체와의 동반 진출, 중국자체시장 확대를 대비한 시장 선점, 싼 인건비, 수요집중 지역 진출, 해외수출 전진기지 확보 등의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주력시장이 內需爲主거나 輸出爲主의 兩極化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일부업체들은 내수의 안정성 확보와 필요외환 조달의 일환으로 내수에 치중하면서도 수출을 하는 상당히 선진적이고도 전략적인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 가지 방향의 시장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문한 업체들이 大企業과 中小企業으로 兩極化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의 주력기반을 아직도 한국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진출이 본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原, 副資材 調達도 한국으로부터, 또는 일본, 호주 등 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체의 勞動集約型 업종으로 輸出爲主의 업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本社와 現地投資業體 간의 분업구조는 대체로 한국의 본사가 원, 부자재 조달, 제품개발 및 디자인개발 치중, 자재관리, 세계적인 영업망활용, 제품생산의 차별화, R&D 및 핵심공정 등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즉, 임금 등 단순한 요소가격의 우위로 제조업에서 경쟁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명확히 제공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전체 투자 건수인 3만여 개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화동지역에서 그런대로 활발한 영업을 하는 20여 개 사의 면담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사실들이 과연 一般化될 수 있을 것인지가 당장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즉, 현재 收支 黑字를 나타내고 있는 韓中間 交易이 우리나라의 많은 중국 진출 투자업체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중국의 시장성에 의해서든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에 기인하든, 아니면 역수입에 의존하든지 간에 이들 투자업체들의 중국 진출과 중국 현지업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 교역수지도 변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微視的인 사실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각종 통계수치를 활용한 보다 巨視的인 分析을 하면서 무역-투자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3. 中國 自體 및 韓中 交易의 特徵

3.1. 中國 交易의 一般 特徵

中國 交易額의 증가속도는 엄청났다. 改革, 開放政策의 채택 원년인 1978년에는 206.4억 달러로 우리나라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30위권 밖의 교역국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4년에는 총 1조 1,548억 달러로 세계교역의 6.2%를 차지하면서 미국, 독일에 이어서 세계 3위 교역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 팽창속도에 있어서 유례없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規模的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質的인 면에서도 여타 개도국이나, 아시아 국가와도 차별이 지어지는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첫째, 製品 構造의 급속한 高度化이다. 특히 이는 輸出製品의 構造가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輸出에 있어서 제조업제품이 1992년⁽¹¹⁾에 77.0%를 차지하던 것이 2004년에는 93.2%를 차지하게 된다. 12년 만에 16.2%포인트의 증가가 있었다. 이를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변화의 폭과 차이가 더욱 크리라고 본다. 반면에 輸入에 있어서는 제조업제품이 81.2%이던 것이 79.1%로 약간 변화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중국의 수출 구조가 과거 12년간에 걸쳐서 많은 외국합작업체, 특히 多 國籍企業들에 의해서 製造業 製品 위주로 高度化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로 주력 수출 제품 가운데 기계 및 운수장비의 비중이 14.6%에서 45.2%로 무려 30.6%포인트가 증가하게 되는 놀랄 만한 수출제품 구조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반면에 輸入 商品 構造는 대체로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表 1〉 참조).

둘째,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업체들의 중국 전체 수출에의 기여이다. 즉, 중국의 교역을 輸出入 形態別, 企業別 비중 변화를 통해 분석해 보면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온다. 즉, 업체를 國有業體, 合作業體, 其他業體⁽¹²⁾로 나누고, 交易形態도 1) 일반 무역, 2) 가공 및 조립 무역, 3) 수입원자재 단순조립, 4) 합작업체 설비도입, 5) 보세가공 무역 등 5개로 크게 나눈다면 각 소유제별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11) 1992년은 우리나라에게는 물론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에는 한중 수교 원년일 뿐 아니라 중국의 대외교역이 한국의 대외교역을 추월하는 원년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 세계화로 본격적으로 나아간 시기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와의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12) 이는 주로 비국유기업으로서 향, 진정부 등 기초행정단위 내에 있는 정부주도의 기업이랄 수 있는 집체기업과 민간기업체를 포함한다.

〈表 1〉 中國 輸出入 製品의 構造 變化

(단위: %)

	수출		수입	
	1992년	2004년	1992년	2004년
1차제품	23.0	6.8	18.8	20.9
식품 및 식용동물	10.7	3.2	5.2	1.6
음료 및 담배류	0.8	0.2	0.3	0.1
비식용원재료	4.7	1.0	8.4	9.9
광물 및 연료	6.7	2.4	4.4	8.6
동식물유등	0.1	0.0	0.6	0.8
제조업제품	77.0	93.2	81.2	79.1
화학 및 유관제품	5.2	4.4	17.1	11.7
각종 제조업제품	19.5	17.0	23.3	13.2
기계 및 운수장비	14.6	45.2	34.1	45.0
기타제품	37.6	26.5	6.7	9.2

資料: 중국세관통계자료(China Customs Statistics, 2004)에 의거해서 필자가 계산해 냄.

2004년의 경우 중국은 5,933억 달러의 대외수출과 5,614억 달러의 대외수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우선, 일반 무역은 수출 2,436억 및 수입 2,482억 달러로 그 비중이 수출에서 41.1%, 수입에서 4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즉, 총교역의 60% 정도가 一般 貿易이 아닌 합작업체들의 활동과 관련된 非一般 交易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表 2〉 참조).

또한 國有企業體는 가공 및 조립무역, 그리고 수입원자재의 단순조립도 하지만 주로 一般 貿易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合作業體들은 훨씬 다양한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중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합작업체는 수출에서 57.1%의 비중을, 수입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합작업체의 설비도입과 보세가공 무역에는 합작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합작업체는 輸出의 경우 가공 및 조립 무역과 수입원자재의 단순조립⁽¹³⁾에 총 7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輸入에서는 수입원자재 형태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업체의 설비도입도 9.6%, 보세가공 무역 9.4%, 가공 및 조립 무역이 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중국은 輸出을 더 많이 할수록 貿易收支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속, 확대된다는 것이다. 중

(13) 이것은 OEM 등을 포함하여 나타내고 있다.

〈表 2〉 企業의 所有構造別 輸出入 形態(2004年 基準)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SOE	JV	기타	SOE	JV	기타
일반 무역	101,708	63,150	78,778	135,364	72,927	39,934
가공, 조립 무역	30,241	29,939		20,775	26,624	
수입원자재 단순조립	13,879	236,415			157,039	
합작업체 설비도입					31,203	
보세가공 무역					30,417	
기타						
총	153,594	338,607	101,168	176,453	324,569	60,401

資料: 중국세관통계자료(China Customs Statistics, 2004)에 의거해서 필자가 계산해 냄.

국은 1981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24년간 1981, 1984~1989, 그리고 1992년 등 8년간을 제외한 2/3에 해당하는 16년간 내리 貿易收支 黒字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타 선진국들로부터 설비나 원, 부자재를 수입하여야 함에 따라서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赤字⁽¹⁴⁾를 기록하게 되는 전통적인 현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무려 7,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外換保有庫를 쌓게 됨으로써 세계 2위의 外換保有國⁽¹⁵⁾이 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논의 되는 것이 中國의 對外開放度가 아주 높다는 것이다. 즉, 중국도 아시아 여타 국가처럼 대외개방도가 너무 높아 海外需斐의 변화에 상당한 정도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2004년의 경우 중국의 대외개방도⁽¹⁶⁾는 71.7%로 여타 거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¹⁷⁾에 비해서 무척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특징은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상당수의 수출회사가 FDI업체들로서, 이들의 공헌에 의해서 상당한 비중이 단순히 가공무역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중국의 수출입 구조는 구조적인 결과로서 非彈力的이고 결과적으로는 換率非彈力的이 되는 것이다. 즉, 합작업체의 비중 때문에 그만큼 국내경제에 미치는 連鎖的인 效果(linkage effect)도 상대적으로 약하

(14) 한국의 경우, 만성적인 대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15) 물론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많이 쌓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규모가 크다는 것에 기반을 둔 국가 premium을 무시할 수 없다.

(16) (수출+수입)/GDP로 집계된 단순한 수치용 이용한다.

(17) 미국은 19.9%, 일본은 25%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정에 의한 교역수지 조정효과가 미미해질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 교역의 60%가 價格 非彈力的인 合作業體 관련 交易⁽¹⁸⁾이기에 위안화 환율이 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수출억제나 수입증가에 크게 효과가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2. 韓中 交易의 特徵

우리나라의 對中 交易 推移는 <表 3>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교역통계에 따르면 한중 교역은 수교 원년인 1992년부터 그 양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만 2년 만에 1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한국의 金融危機를 전후해서 1998~2001년까지는 다소 주춤하게 된다. 그러던 것이 2001년 말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對中 投資가 연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한편, 交易額도 2003년에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또 다시 양국 간 교역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연장한다면 2005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 교역은 1,000억 달러를 쉽게 넘을 것으로 예기된다. 한편, 만약 향후 상당 기간 과거 교역의 평균 신장세인 20%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매 4년 이내에 교역량이 배가 되며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2008년 정도면 양국 간 교역은 2,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中 交易의 商品 構造 변화도 중국의 對世界 交易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앞 장에서 밝혀진 중국의 일반적인 무역의 특징과 현지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바처럼 많은 교역이 直接投資業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은 단순히 중국의 경기가 좋으냐로 결정되는 측면보다는 世界景氣가 호전되고 이것이 中國의 交易需要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對中 交易를 창출하게 되는 연결고리를 따르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양국 간 교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쟁점은 앞서서도 제기했던 것처럼 貿易收支의 擴大 내지는 縮小 여부이다. 중국은 교역이 늘수록 여타 국가와는 달리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이나 대만 등과는 만성적인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기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교역의 확대균형교역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수교 이후 첫 해까지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역조가 있었으나, 1993년 이후부터는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측

(18) 즉, 이들 합작업체들은 주로 보세 가공이나, 단순 가공 등, 원부자재를 자체조달하게 됨으로써, 내부자 거래가 기업자전거래 등에 의존하기에 상대적으로 환율에 비탄력적이게 되는 것이다.

〈表 3〉 韓國과 中國의 貿易, 稅收, 貿易收支의 推移

(단위: 억 달러)

구분	한국의 대중국 무역통계						중국의 대한국 무역통계				조정수지	
	수출(A)	대중투자	수출(A')	수입(B)	수지(A-B)	수출(D)	수입(E)	수입(E')	수지(D-E)	A'-B	D-E'	
												수출(A)
1986	1		1	6	-5	2	4	4	-2	-5	-2	
1987	2		2	7	-5	2	3	3	-1	-5	-1	
1988	4		4	14	-10	4	5	4	-1	-10	0	
1989	4		4	17	-13	8	4	4	4	-13	4	
1990	6		6	23	-17	13	7	6	6	-17	7	
1991	10		10	34	-24	22	11	10	11	-24	12	
1992	27	1	25	37	-11	24	26	24	-2	-12	0	
1993	52	3	48	39	12	29	54	49	-25	9	-20	
1994	62	7	55	55	7	44	73	67	-29	0	-23	
1995	91	10	81	74	17	67	103	94	-36	7	-27	
1996	114	15	99	85	28	75	125	113	-50	13	-38	
1997	136	21	114	101	35	91	149	136	-58	13	-45	
1998	119	18	101	65	55	63	150	136	-87	37	-73	
1999	137	13	124	89	48	78	172	157	-94	35	-79	
2000	185	15	170	128	57	113	232	211	-119	42	-98	
2001	182	22	160	133	49	125	234	213	-109	27	-88	
2002	238	27	210	174	64	155	286	260	-131	36	-105	
2003	351	45	306	219	132	201	432	392	-231	87	-191	
2004	498	62	435	296	202	279	623	566	-344	139	-257	

資料: 무역협회, 중국세관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통계연감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계산해 냄.

통계에 따른다면 수교 첫 해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대한 무역수지 역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金融危機 도래 시 중국은 우리나라의 外換保有庫 부족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를 탈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즉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누적기준으로 무려 306.3억 달러의 收支 黑字⁽¹⁹⁾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이 우리나라의 外換부족에 따른 금융위기 탈출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만성적인 對韓 貿易收支 赤字로 연결됨으로써 최근에도 한중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정부 간 회담에서 우리나라측에 중국이 항의하는 근간을 이루게 된다.

〈表 3〉에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의 對中 交易收支는 우리통계에 따르든, 중국통계에 따르든 적어도 1993년부터는 우리의 지속적인 黑字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에 있어서 수입선 다변화 등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즉, 1990년대만 보더라도 1997년 外換危機 도래 이후 아마도 설비도입의 축소로 대일 적자폭이 다소 줄어든 바 있으나, 최근에는 또 다시 대일 적자폭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유발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에 현재 국내업체들의 對中 投資가 늘어날수록 언젠가는 交易收支가 역전될 것이라는 주장⁽²⁰⁾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 간 교역 논쟁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는 統計의 不一致로서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原產地 問題와 직결되는데, 대체로 우리의 대중국 교역 가운데 홍콩을 경유하는 부분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통계의 일치가 어느 정도 진전된 관계로 그 해석력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통계 불일치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韓中 交易 統計를 標準化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역 통계치가 정확한 동일 기준하에서 집계되어야 중, 장기적인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통계치를 다양하게 재구성해 보았다(〈表 3〉 참조).

첫째, 우리나라의 對中 輸出入을 貿易協會의 집계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나타내 보았다(수출(A), 수출(B)).

두 번째가 中國側의 統計值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 되었다(수출(D), 수입(E)).

세 번째가 우리나라측의 대중 수입액이 cif로 집계⁽²¹⁾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입단가

(19) 중국측 통계는 동 기간 동안 중국이 598.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 무역협회의 논지가 가장 대표적일 수 있다.

(21) 대체로 무역 통계치는 수출이 fob로 수입이 cif로 집계되는데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대

에 약 10%가 부가되었으리라는 점을 가정하여 1.1로 나누고 이를 한국측의 對中 輸入과 중국측의 對韓 輸入值에 각각 반영해서 이를 표준화할 수 있었다(수입(E')).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속에는 상당한 양의 우리나라 투자와 관련된 설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즉, 이 수치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감한다면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양국 간 순수 수출입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중국측이 집계하고 있는 到着基準(arrival base)의 대중 투자치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제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直接投資(green investment)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존 업체의 리受(portfolio investment, or M&A)가 주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의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교정해 줄 필요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양국 간의 교역이 가장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수출(A')). 이것을 종합해서 표로 나타낸 것이 <表 3>이다.

그런데, 標準化한 韓中 間 交易 統計值를 비교해 본다면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2002년을 전후해서 對中 收支 赤字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게 되었다. 즉 2001년을 기점으로 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 보인 바 있으나 2002년부터 다시 매년 늘어나서 연간 최소 36억 달러 최대 300억 달러 이상의 수지 흑자가 기록되고 있다. 이는 우선, 中國이 2001년 WTO가입이라는 커다란 외부변수에 의해서 中國經濟가 워낙 호조를 보임으로써 對中 交易이 확대되는 측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표준화 이전과 비교,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3.3. 韓中 貿易收支의 中期 推定

양국 간 교역수지의 추정 모델은 과거의 논의들이 주로 巨視變數로서 추정치를 보는데 그쳤다. 즉, 期間別 단위로 분석된 데 반해서 이 연구는 部門別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는 수지변화 전망과, 대중 수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적절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貿易收支의 方向일 것이다. 무역수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계열로 추정하는 것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것보다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역내경제의 긴밀화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제로 cif를 1.1로 나누면 fob로 바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에 의한 교역의 확대를 기본으로 해서 변모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내산업구조조정과 연결된 대중 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²²⁾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장에서는 부문별 투자에 따른 교역의 추이를 정확하게 도출 해낸 후 이를 근간으로 해서 무역수지의 향방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貿易收支의 방향을 구성하기 위한 간단한 통계로서 한중 간 교역 가운데 輸出增加率과 輸入增加率로 세분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분석에 의한다면 수지의 추이가 향후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는 다소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우리측 통계는 물론이고 중국측 통계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높기에 우리의 대중 수지 흑자의 추세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수지의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2003년을 기점으로 또 다시 역전되어 우리의 對中 輸出이 더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해 보기 위해서 部門別 輸出入의 증가속도를 분석해서 이를 통해 향후 수출입의 방향과 수지추이의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령 우리는 HS 1단위분류인 22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業種別 貿易收支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적어도 2010년 정도의 중기까지는 연장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역통계가 기본적으로 22개 업종에 대해서 적어도 1992년부터는 일관된 통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요소가 가미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總貿易收支는 각 업종의 수지의 합이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하게 표시하면 $\text{Trade Balance} = \sum(X_i - I_i)$, $i = 1 \sim 22$ ⁽²³⁾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i 는 業種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單純平均增加率을 통해 업종별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업종별 이동평균을 써보는 것이다. 즉, 업종별 무역량의 증가치를 증가율로 적절하게 재평가해서 이를 토대로 다시 합한다면 이것이 무역수지의 중기적인 추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추정⁽²⁴⁾해 보았다.

이 결과는 2010년의 경우 수출이 3,000억 달러를, 수입이 1,500억 달러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 이상의 交易收支 黑字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19개 분류 가운데 우리나라 12개 업종이 業種別 赤字를 나

(22) Cheong(1999)을 참조.

(23) 실제로는 20개 업종으로 재조정하였다.

(24) 첫 번째 방법도 결과는 대동소이하게 나왔다.

〈表 4〉業種別 收支의 推定 및 總貿易收支 推定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2010년 수지
	2004년	2010년	증가율	2004년	2010년	증가율	
HS1	123	539	16.7	846	2428	22.9	-1889
HS2	46	103	10.2	769	511	-6.0	-408
HS3	4	10	15.7	13	24	8.8	-14
HS4	137	632	24.5	499	1301	14.9	-669
HS5	2833	15492	27.9	2524	7119	15.8	8773
HS6	5693	35770	32.5	1642	5717	20.2	30053
HS7	3969	16919	24.2	439	2489	30.7	14430
HS8	498	585	8.2	375	1096	18.7	-1038
HS9	37	83	5.2	274	680	20.0	-597
HS10	439	772	13.8	104	193	2.3	579
HS11	2749	5120	13.9	3338	6606	12.6	-1486
HS12	247	573	21.9	481	1521	22.8	-948
HS13	237	618	23.3	824	2816	21.7	-2198
HS14	117	512	26.1	120	816	30.3	-304
HS15	5382	22085	17.0	4783	22478	32.8	-393
HS16	21681	172044	37.8	10814	86777	42.3	85267
HS17	2544	12852	10.1	208	2978	64.0	9874
HS18	2738	17541	35.0	762	3701	28.8	13840
HS20	288	929	19.2	767	3822	29.0	-2893
HS19, 21, 22	0	0	-51.9	1	1	-9.5	-1
총계	49763	303179	24.3	29583	153072	22.7	150107

資料: 무역협회(KITA)자료를 중심으로 필자가 계산하여 연장함.

타내고 있었던 데 반해 7개 업종에만 業種別 赤字를 기록했지만 이들 업종에서 전체적으로는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主力 輸出品의 集中度가 높은데다가 그 업종에서의 輸出伸張率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현실을 반영치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정도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래도 이 結果에는 몇 가지 問題가 있다. 첫째로, 實現可能性의 問題로서 당장 GDP 대비 대외비중이 100%를 넘는 完全開放型 經濟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중 양국 간 교역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0%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매년 1%포인트가 올

라간다고 하더라도 2010년에 25%가 될 것인데, 이때 韓中 間 交易이 4,500억 달러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總交易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GDP성장률을 연간 평균 5%⁽²⁵⁾로 본다고 한다면 2004년의 GDP 정부 발표치가 6,800억 달러였던 만큼, 2010년에는 9,112억 달러로 나타남으로써 교역의존도가 200%를 넘게 된다는 가설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경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우리경제로 보아서 지나치게 빠른 대외팽창으로, 우리의 수치 추정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예기해 주고 있다.

둘째로, 우리의 對中 收支 黑字 업종 기반이 숫자상으로 작은 만큼 이를 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몇 개의 업종에서 대중 수치 흑자를 워낙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 업종이 자칫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수치 흑자가 역전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흑자 기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력산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대대적인 再投資 및 新規投資가 따라야 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고 있었다. 즉, 우리의 對中 投資도 늘어났지만 이에 대응하는 國內 投資도 그만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상기 결과는 그야말로 1차원적인 분석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貿易과 投資의 關係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4. 貿易과 投資의 相關關係 分析: 韓中 關係에 대한 適用

4.1. 對中 交易 決定要因 分析

앞 장에서 한국의 대중 교역 추세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화동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업체들의 영업행태를 통해서 향후 교역의 방향에 대한 초보적인 추론이 가능하였다. 또한 한중 무역수지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하지 않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장에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관계를 업종 기준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지의 방향 추정 및 변화의 방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5) 물론 현재 우리경제의 최대의 문제는 과연 GDP성장률이 5%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비교를 위해서 최대로 5%로 잡고자 한다.

4.1.1. 對中 輸出 決定要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앞서도 정리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중국자체시장의 확장으로 1978년 이후 연 10%의 平均成長率을 기록함으로써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의 15배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졌다. 특히 年間所得 1만 달러 이상의 신규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약 5%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더욱 더 강화해 주고 있다. 즉, 중국시장의 신장에 의해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産業補完性(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간에)이 높음에 따라서 그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중국자체시장의 신장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가, 對中 輸出의 큰 흐름이 우리나라업체들의 對中 投資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한 업종의 투자관련 대중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장 中國의 要素價格이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많은 우리업체들이 중국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중국의 勞動力에 주로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push factor에 의해서 중국으로 투자가 일어나며 이와 관련된 유발 수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주로 中小企業體들이 많은 관련이 있는데, 재미난 것이 이들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일부는 이미 제3의 지역으로(국내든, 해외든)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²⁶⁾이다. 즉, 이들 업체의 대중 투자는 중국의 싼 임금을 기본으로 가공하여 제3국 시장으로 재수출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물론, 여기서는 市場差別化 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질보다 다소 못한 것일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제조해서 파는 제품은 동구권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⁷⁾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급제품을 생산해서 기존의 주력시장인 미, EU, 일등에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령 우리나라의 임금과의 상대가격차의 해소, 그리고 중국 임금자체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의 對中 投資가 줄어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관련 對中 輸出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對外 輸出도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26) 상하이 인근지역 투자업체의 일부는 단순임금격차가 소진됨으로써 일부는 중국내의 내륙지역으로 또 일부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심지어는 북한의 개성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조차하다.

(27) 가령 중국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이 대표적이다. 이단 업계에서는 3국간 교역이라고 부른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요인, 가령 임금압력, 정치적인 불안, 아니면 경제여건의 악화 등, 우리나라 産業競爭力이 떨어질수록 우리업체들이 중국으로 더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수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전체의 대외 수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력 시장이랄 수 있는 미국, 일본, EU로의 수출이 중국 자체의 산업경쟁력의 신장으로 늘어날 수 있다. 즉, 중국 전체의 對外 輸出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輸出이 늘어나게 되는 견인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대중 원·부자재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우리의 中國內 韓國人村의 형성에 따른 자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출이다. 이는 많은 해외 화교망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중국내 진출로 한국마켓이나, 한국관련 학원 등이 존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에 있어서도 새로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에 새로운 움직임이 중국에서의 골프 관광이라든지, 중국내 유학생 수가 4만 5천 명에 달한다든지, 중국내 거주 한국인이 약 5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든지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중국내에는 유학생을 필두로 해서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지에 있던 조선족⁽²⁸⁾ 등과 함께 새로운 한국인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인촌에 대한 교역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으로 域內生産, 域內消費가 더욱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 대만경제 관계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태여 역내에 제도적으로 FTA의 형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世界化의 물결과, 中國의 經濟體制 轉換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1.2. 對中 輸入 決定要因

반면에 對中 輸入의 크기는 우리의 수출의 경우와 똑같이 당장 우리나라의 對中 投資

(28) 중국에는 조선족이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족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실시한 2000년도 기준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조선족은 1990년의 192만 2,361명에서 2000년의 192만 3,842명으로 10년 만에 단지 1,481명이 증가한 데 불과하였다. 이는 1982년의 176만 3,870명에서 1990년에 15만 8,491명이 더 늘어났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참고로 동 기간에 중국전체인구가 9.9% 증가하였으며 1가족 1자녀 운동의 인구증가 억제에 주대상인 한족도 9.4%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의 출생률이 급감한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 인구가(가령 여타 민족 인구증가율로 연장 시, 약 18만여 명) 한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 합법, 불법적으로 재이주,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으로 투자업체가 나가서 현지의 싼 요소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다시 우리나라로 逆輸入하는 움직임에 의한 것일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소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역수입하는 것일 것이다. 2005년 하반기에 문제시 된 바 있는 김치수입이 이러한 제품의 하나이다. 이러한 제품은 비단 농산물 제품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워낙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용이하게 중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더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의 예가 中國 業體들의 競爭力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輸入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업체의 경쟁력이 신장될수록 우리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하이얼이 LCD TV 세트를 염가에 방출함으로써 국내시장이 한번 출렁거린 경우가 있다. 즉, 중국시장의 신장에 따라서 국내자체 경쟁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하이얼 등은 중국내에서의 제품생산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여 대다수의 물량은 기존의 수출선에 공급하는 대신에 일정 부분은 中間財 形態로 우리나라로 逆輸入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내다팔게 되는 형식일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많은 신발류 제조업체들의 부품들이 거의 최종적인 조립단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서 국내시장용으로 제조,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형태이다. 이 가운데는 상당수의 물량이 附加價値를 올리기 위한(수출이윤 마진폭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原產地 交替가 일어나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가 마지막 포장 단계에서 한국산으로 찍혀서 제3국 시장(미국, 유럽, 일본)으로 재수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 요인이 對中 交易收支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큰 관심이며 그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對中 投資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우리나라 중국 진출업체들의 개별적인 영업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에 진출한 개별업체들의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진출기업들이 中小企業體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만큼 자료축적 및 제공 등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²⁹⁾하고 있다. 따라서 客觀的인 資料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상태를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29) 중국에는 현재 <중국한국상회>의 지역 지회가 약 30여개 결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의 중국투자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현지투자업체협의회> 또한 결성되어 있어 이들을 통한다면 상당히 정확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취득 가능한 각종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어떤 요소가 더욱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추정, 이를 기반으로 一般化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원, 부자재가 중국 현지 공장의 가공을 거쳐서 얼마 만에 중국에서 해외로 재수출하게 되는지도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4.2. 假說의 設定

앞에서 선진국들은 대중 교역이 완제품의 교역에 치중하고 있으며, 투자의 동기도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판단, 투자가 대형화되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對中 投資는 3만여 건 이상의 업체들이 진출했지만 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의 零細生計型投資⁽³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또한 앞 장의 현지면담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巨視的인 統計值가 얻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몇 가지 假說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중국 국내시장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인지는 各 業種別 중국시장의 팽창 속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업체들도 이 업종에 적극 투자하게 될 것이다. 즉, 한 업종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도 그 업종의 중국시장이 커질수록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貿易收支를 악화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중국자체의 對外輸出이 증가할수록 중국 업체들의 우리나라로부터의 원, 부자재 수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중국의 貿易收支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韓日 交易關係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잘 알려져 있다. 韓中 관계도 韓日 관계와 같은 교역관계를 답습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가설은 賃金格差假說로 한중 간 업종별 임금격차가 클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對中 直接投資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對中 輸出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중 수출을 늘려서 결국은 중국의 對韓 交易收支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임금격차가설은 한 업종의 국내임금상승폭이 여타 업종보다 높을수록(가령 국내임금상승폭의 평균보다 높을수록) 대중 수출을 가속화시키는(또는 감속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상, 國內市場擴大說, 중국자체의 對外交易擴大說, 賃金格差說, 그리고 製品生産差別化政策 등의 중요성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수지는 중, 장기적으로 결정될

(30) 최근의 김치논쟁에서 문제시 되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우리의 김치공장들로서, 이들의 투자규모래야 건당 수십만 달러 전후로 아주 작다고 할 수 있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통계의 획득과 이를 통한 적어도 부호 정도는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統計資料⁽³¹⁾

여기서 우리는 統計資料의 획득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交易統計였다. 앞서도 지적했고 무역수지 전망에서 이미 활용했듯이 우선 우리나라의 對中交易統計와 중국의 對外交易統計를 상당히 자세한 단계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는 韓國貿易協會(KITA)가 아주 자세한 단계까지의 데이터파일을 한국 및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교역통계에 대해서는 1998년 이후부터, 한국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교역은 HS分類基準에 따라서 90개의 業種 分類에 기초해서 이를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중국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는 국제연합국(UN)의 SITC2무역 분류를 채용했으나 1992년부터 HS基準을 택해서 정리⁽³²⁾하고 있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통계치와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두 번째가 要素價格이다. 요소가격 가운데 가능한 한 가지라도 추적하기 위해서 뭔가 객관적인 통계치의 입수가 필요하였다. 우리가 알기에는 현재 중국내의 부동산가격이 상당한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장부지의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싸다. 즉,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그 사용권만이 임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담은 크게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業種別로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업종별로 지대의 임차료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는 결국 측정 가능한 貨金 부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행히도 중국노동통계연감이 매년 발간됨으로써 그런대로 中國貨金 統計值를 알 수는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업종 분류 가운데 다른 많은 통계가 그러하듯이 製造業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시하고 있지 細分化하고 있지 못하였다. 즉, 16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50개 세분류로 나누어 두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제조업의 세분류는 일관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2003년도부터는 임금의 세분류를 제조업 30개 업종을 포함한 통계치를 발표⁽³³⁾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勞動部가 출간하는 勞動統計年鑑에 의해서 제조업 23개 업종을 포함

(31) 동 분석에 활용된 각종 통계치의 일치표는 〈附表 2〉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32) China's Customs Statistics, 1992년 Q2 참조.

(33) 이 연구팀 수행할 당시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판이 중국노동통계연감, 2004로 수록통계의 해당연도는 2003년이였다.

한 총 36개 업종으로 분류한 자세한 임금관련 통계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사실로 한국과 중국 간의 業種別 賃金水準을 표준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에서는 양국 간 임금수준을 비교함으로써 業種別 相對賃金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對中 投資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업종의 중국으로의 투자가 먼저 늘어나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경우, 賃金格差要因에 의한 對中 收支의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가 市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또한 적합한 자료가 없어서 統計資料의 再分類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제조업의 세분류된 시장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中國統計年鑑의 국내총생산편에서 1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강의 통계치를 얻고 나서 제조업의 각 業種別 市場의 크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附加價值 기준으로 제조업 전체시장의 크기를 식별해 낸 후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업종별 시장 크기를 추정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한 한 가지 방법은 중국 통계연감이 밝히고 있는 중국의 국유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의 賣出額을 중심으로 해서 추정한 것이다. 즉, 이들 업체의 매출액이 전체 제조업체 업종의 附加價值 創出과 비례한다는 假定下에서 이를 가지고 자료를 재구성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營業額과 附加價值額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측도는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서 우리는 이를 대용변수로 쓰기로 하였으며 1996년과 2003년치를 계산하여 7년간의 業種別 産業伸張率을 하나의 변수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對中 投資業種 分類와 業種別 投資規模 水準이다. 이는 韓國輸出入銀行이 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여기서도 세세한 분류의 통계치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둘째로, 韓國輸出入銀行의 統計値가 우리나라의 對中國 實際投資額과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신고액이 중국이 자체 집계하고 있는 통계치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문을 통하지 않고 후문을 통해서 나가는 투자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50%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 합계치가 중국측 통계로는 2004년 말 현재까지 그 누계액이 약 230억 달러인데 반해 수출입은행의 누계치는 약 110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統計値를 再構成하여 일관된 통계를 작성했는데도 몇 가지 問題는 남았다. 첫째, 업종별 통계치가 무역 아닌 것은 그래도 총 29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무역의 경우 22개 업종에 불과⁽³⁴⁾하였으며 모든 통계가 回歸分析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고작 10여 개에 불과하였다. 즉, 결과적으로는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시계열로도 통계별로 일관된 것을 작성하는 데는 中國의 貨金統計의 부족으로 인해 2003년 단 한해의 통계치 만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 우리의 분석은 한계를 지닌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4.4. 回歸分析의 結果

앞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금번 연구의 계량적 측면의 결과는 입수 가능한 통계자료가 자체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관계로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각 변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위하여 한 업종의 直接投資 增加率 (grFDI)을 從屬變數로 설정하는 한편, 업종별 시장의 신장(grGDP), 중국의 상대임금 (KW/CW), 한국의 업종별 임금상승률(grKW), 한국의 對中 輸出增加率(grKCX), 한국의 對中 輸入增加率(grKCI), 중국의 海外輸出增加率(grCX), 중국의 海外輸入增加率(grCI) 등 8개의 변수들을 각각 獨立變數로 설정하여 單純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장 유의미한 변수들을 가지고 다시 재조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表 5>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당초에 우리는 貿易과 投資 間의 關係가 확실하게 규명되어 적어도 韓中 間 貿易收支의 추이를 상당한 정도 정치하게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 바 있었다. 그러나 통계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재확인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첫째,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는 일관되게 貨金 變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grKW 나 KW/CW가 일관되게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t값도 아주 빈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두 번째가 동태적으로 보아서 중국 자체 시장의 확대에 인해서 상당한

<表 5> 回歸分析의 結果

	grKW	grGDP	grCX	KW/CW	grCI	R-Square
모델 I (n=12)	9.30 (1.96)	2.63 (3.24)	-1.91 (-2.5)			0.5673
모델 II (n=14)		2.62 (2.63)	-1.16 (-1.41)	0.88 (1.27)		0.3893
모델III (n=14)	5.49 (1.55)		-0.86 (-1.60)		1.01 (3.58)	0.6278

(34) 이는 일부 업종이 성격상 비교역재였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直接投資가 일어나고 있었다. 반면에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가설이 중국으로의 직접투자가 결국은 중국의 輸出競爭力을 높여서 對外輸出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즉, 모델 I, II, III에서 공통적으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으로의 직접투자의 증가는 당연하지만 중국의 수입증가와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종합한다면 우리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결정은 일단 賃金 要因과 중국의 內需市場指向型이라는 것을 초보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론이 시기에 따라서 재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結語 및 研究의 限界

우리는 이 논문에서 投資와 貿易의 關係를 市場指向인지, 要素價格 差異인지를 기본적인 의문점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2003년 중국이 처음으로 平均賃金資料에서 製造業의 세분류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런데, 투자업종 분류가 아직 완전⁽³⁵⁾하지 못하고 시계열로도 1년간밖에 집계되고 있지 못하여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향후 더 나은 분석의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 연구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과 투자의 관계는 시장과, 요소가격 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韓中 關係에 있어서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要素價格 隔差와 市場의 크기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성장 동력의 발굴은 인력고용의 부문에서 인력의 질을 높이는 여타부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중시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었다.

둘째, 한중 간 무역수지는 한일 간 무역수지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對中 黑字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對中 投資의 증가에 의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韓中 交易 關係가 적어도 2010년까지는 韓日 交易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좀 더 희망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즉, 현재의 대중 투자의 흐름을 단순히 우리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수세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經濟의 國際化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한편, 기왕 나가게 되는 업체들이 좀 더 현지에서 더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35) 여기는 입력 오류, 합계 오류, 해석상의 오류 등이 개제되어 있었다.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었다. 즉 우리의 해외부문이 상당한 정도 안정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결과들은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앞에서 기술한 중국현지투자업체들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현지면담업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구조는 무역부문에서 유추해 본다면 급속하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開放型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FTA締結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무역과 투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실, 韓中 間 FTA締結이 그 효과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投資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결국은 이것이 貿易 構造를 변경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아쉬웠던 것은 필요한 일관된 統計資料가 제대로 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도 정직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즉, 연구과정에서 현지투자업체 사장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보고들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동 논문이 현재의 상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줄 수 있었다. 결국 이 연구는 현지실사, 一般化 시도, 처음으로 業種別 차원의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서울大學校 國際大學院 副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8514

팩스: (02)887-6361

E-mail: yrcheong@snu.ac.kr

〈附表 1〉 華東地域 面談 業體들의 中國 進出 概況⁽³⁶⁾

일련번호 진출연도	업체 규모 ⁽³⁷⁾	업종	진출동기 및 전략	주력시장 (수출비율)	원, 부자재 구입원	한국본사 역할
1(1996)	중소기업	화학	- 시장 잠재력, 유관대기업업체 동반 진출 - 고급제품(한국사양)	내수	현지조달 위주: 90%	본사없음
2(1993)	중소기업	완구	- 완구를 기반으로 비영역 다 각화 추구: 잠재시장성	100%수출		원부자재조달, 제품개발, 디자인
3(2003)	중소기업	화학	- 수요자 집중지역 진출 - 잠재시장성	수출위주: 90% 이상	일본	일본이 본사
4(2003)	중소기업	화학	- 유관대기업체와 동반 진출 - 궁극적으로 중국시장 개척겨냥	내수: 90%	일본 30%, 한국 40%	
5(2002)	대기업	건축자재	-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건축원자재의 수요확장 - 내수시장 위주, 한국업체 밀집지역 - 고가외국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수요자 근처로	내수위주: 90%		기술력축적
6(1993)	중소기업	신발	- 싼 지가 및 바이어들의 권유 - 거래선의 장기유지	수출: 95%, 미국위주		자재관리
7(1993)	중소기업	섬유	- 1988년 이후 노조문제 대두, 이를 회피 - 인건비 문제	90% 이상 한국으로 역수출	70% 이상 수입: 국내 및 호주 등	영업기능만
8(1998)	중소기업	전자	- 고객입지지역 - 시장잠재력 가능성	- 수출위주: 90% - 한국역수 입위주		독자업체
9(1992)	중소기업	피혁	- 효율적 통관	수출위주: 90%	원부자재 현지조달 비율 상승	영업(주문)
10(2001)	중소기업	안경	- 인건비 및 시장 잠재성	- 내수위주: 80% - 수출 20%: 브라질, 이 태리	현지매입 80% 이상	- 제품 차별화 - 고급제품만 생산

(36) 회사의 전략이나 기밀 노출될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회사명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37) 상장업체는 대기업, 비상장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附表 1〉 계속

일련번호 진출연도	업체규모	업종	진출동기 및 전략	주력시장 (수출비율)	원, 부자재 구입원	한국본사 역할
11(?)	중소기업	포장재	- 인건비 및 수요처	내수	현지매입	독자업체
12(1996)	중소기업	실크	- 한국기업 밀집지역 - 교통물류이점	수출위주: 70%		디자인개발
13(2000)	대기업	철강	- 수출대체 - 노조문제회피	- 내수위주: 66% - 나머지 33% 한국 및 일본 수출		
14(1994)	중소기업	전자부품	- 유관대기업체 동반 진출 - 향후 자체시장잠재력 평가	- 수출 70%, (러시아, 미주) - 내수: 중국진출 대기업체 공급	한국조달	경영 및 자재관리
15(?)	중소기업	전자부품	- 유관업체 동반 진출	100% 내수	100% 한국본사 공급	원, 부자재 조달
16(2002)	중소기업	전자부품 (금속)	- 유관업체 동반 진출	내수 70%, 수출 30%(전량 한국 역수입)		
17(2003)	대기업	전자	- 세계최대 수요처로 이동 - 거래선 요구사항 만족	내수 100%	한국공급	디자인, 원부 자재 조달
18(2003)	대기업	전자	- IT발달지역 진출			고부가 전략 제품 개발
19(?)	대기업	전자	- 수요집중지역 진출 - 저급형은 칠수, 고급형 만 추구 - 인건비 우위	내수		고부가가치 추구
20(?)	대기업	전자	- 수요집중지 입지 - 해외수출기지	- 수출위주(local 수출 포함)		기술력개발, 영업
21(?)	대기업	자동차부 품	- 시장성추구(2003년부터 개인차 시장의 폭발)	- 내수 90% - 수출 10%		기술력 향상 을 위한 R&D
22(?)	대기업	화학	- 한국의 노조문제 - 현지의 시장 잠재성 거양	- 내수 - 유관 진출업 체 납품용		R&D
23(1998)	대기업	전자	- 대 고객서비스 - 유관업체의 이전을 지원 - 생산비 염가	내수 90%(주로 local 수출)		R&D 및 핵 심공정
24(2003)	대기업	전자	- 유관업체의 진출에 따른 시너지효과 추구형 동반 진출	내수위주	한국	R&D 위주, 기술인력 활 동을 통한 원천기술

〈附表 2〉統計別一致表(Matching Table)

HS분류	투자	한국임금	중국임금	업종별 시장규모
1, 2, 3	농림어업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농, 林, 牧, 渔业	1차산업
5	광업	광업	采矿业	煤炭开采和洗业, 石油和天然气开采业, 黑色金属矿采选业, 有色金属矿采选业, 非金属矿采选业, 其他采矿业
	건설업	건설업	建筑业	建筑业
	도소매업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批发和零售业	批发和零售贸易餐饮业
	운수·창고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交通运输, 仓储和邮政业	交通运输和仓储业
	통신업	copy	信息传输, 计算机服务和软件业	邮电通信业
	금융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金融业	金融, 保险业
	숙박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住宿和餐饮业	중국임금비중으로 계산
	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电力, 燃气及水的生产和供应业	电力, 热力的生产和供应业, 燃气生产和供应业, 水的生产和供应业
	부동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房地产业, 租赁和商务服务业	房地产业
	기타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科学研究, 技术服务和地质勘查业, 水利, 环境和公共设施管理业, 居民服务和其他服务业, 教育, 卫生, 社会保障和社会福利业, 文化体育和娱乐业, 公共管理和社会组织	农, 林, 牧, 渔业, 房地产业, 水利管理业, 社会服务业, 卫生, 体育, 社会保障业, 教育, 文化, 艺术及科学研究和综合技术服务业, 国家机关, 政党机关和社会团体, 广播电影电视业, 其他行业
	제조업			
4	음식료품(고기, 과일, 채소, 유지가공, 낙농품, 목물가공, 전분, 사료, 식품, 음료, 담배)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农副食品加工业, 食品制造业, 饮料制造业, 烟草制品业	农副食品加工业, 食品制造业, 饮料制造业, 烟草制品业
6	석유화학(코크스 및 판련제품, 석유 정제품, 기초화학품, 비료, 질소화합물, 농약, 합성고무, 플라스틱, 플라스틱, 화학제품(화학섬유 제외),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생약제제, 비누, 세정제, 화장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石油加工, 炼焦及核燃料加工业, 化学原料及化学制品制造业, 化学纤维制造业, 医药制造业	石油加工, 炼焦及核燃料加工业, 化学原料及化学制品制造业, 化学纤维制造业, 医药制造业
7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橡胶制品业, 塑料制品业	橡胶制品业, 塑料制品业
8	모피가공, 모피제품 가죽, 가방, 마구류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皮革, 毛皮, 羽毛(绒)及其制品业	皮革, 毛皮, 羽毛(绒)及其制品业
9	목재가구(목재, 나무제품, 가구)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木材加工及木, 竹, 藤, 棕, 草制品业	木材加工及木, 竹, 藤, 棕, 草制品业

(附表 2) 계속

HS분류	투자	한국임금	중국임금	업종별 시장규모
10	종이인쇄(필프, 종이, 종이제품, 출판, 인쇄, 인쇄관련 서비스, 기록매체 부재)	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造纸及纸制品业, 印刷业和记录媒介的复制, 文教体育用品制造业	造纸及纸制品业, 印刷业和记录媒介的复制, 文教体育用品制造业
11	섬유의복(섬유, 의복, 화학섬유)	섬유제품제조업	纺织业	纺织业 纺织服装, 鞋, 帽制造业
12	신발가죽(신발)			
13	비금속광물(유리, 유리제품,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非金属矿物制品业	非金属矿物制品业
14				
15	1차금속(제철, 비철금속, 금속 구조, 구조금속 제품) 조립금속(금속 탱크, 저장조, 유사용기, 헬륨 반응기, 증기 발생기, 금속단조, 압형, 분말 아음 제품, 금속 자타, 날붙이, 수공구, 일 반철물,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철,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黑色金属冶炼及压延加工业 有色金属冶炼及压延加工业 金属制品业	黑色金属冶炼及压延加工业 有色金属冶炼及压延加工业 金属制品业
16	일반목적용기계(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농업용 기계, 가공용 기계, 건설용 기계, 운송용 기계,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기타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전기공급, 제어장치, 절연선, 케이블, 축전지, 밀착전지, 전구, 조명장치, 기타 전자부품(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제외) 전자통신장비(다이하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통신기기, 방송장비, 방송수신기, 기타 영상, 음향기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전기 변환장치제조업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电气机械及器材制造业 通用设备制造业 专用设备制造业 仪器仪表及文化、办公用机械制造业 通信设备、计算机及其他电子设备制造业	电气机械及器材制造业 通用设备制造业 专用设备制造业 仪器仪表及文化、办公用机械制造业 通信设备、计算机及其他电子设备制造业
17	수송기계(자동차, 트레일러, 선박, 보트, 견조, 수리, 철도장비, 항공기, 우주선,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交通运输设备制造业	交通运输设备制造业
18	기타(축경, 시험, 항해 기타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사진, 광학기기, 시계, 시계부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9				
20	기타 제조,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완구류)	가구 및 기타제조업	家具制造业	家具制造业
21				
22	재생재료가공처리	재생재료처리업	废弃资源和废旧材料回收加工业	废弃资源和废旧材料回收加工业

資料: 노동부 <http://laborstat.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中國統計年鑒.

參 考 文 獻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각 년도.
- 김익수(1999):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서울, 博英社.
- 김주영(2002): 『한국의 대중국 투자 10년의 평가와 전망』, 서울, 수출입은행.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서울, 노동부, 각 년 호.
- 이두원·김완중(2005): “한·중 경제의 시차추정 및 산업경쟁력 비교분석,” 미발표논문.
- 이홍식 외(2004): “韓國의 對中國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대외경제연구』, 8, 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영록·이종건(2004): “중국경제의 대두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방향,” 금융경제연구, 161호,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지만수 외(200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KITA): web-site (www.kita.com).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3):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 서울,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3): “한중 무역 불균형 원인 분석,” 서울, 수출입은행.
- 中國勞動部(2004): 『中國勞動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商務部: 『中國對外經濟貿易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각 년 호.
- 中國海關總署(1992, 2004): 『中國海關統計資料(China's Customs Statistics)』. 北京, 中國海關總署.
- Blonigen, B. A., R. B. Davies, and K. Head(2003): “Estimating the Knowledge-Capital Model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3, 3, 980-994.
- Brainard, L.(1993): “A Simple Theor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with a Trade-off between Proximity and Concentration,” NBER Working Paper, No. 4269.
- Caves, Richard E., and Ronald W. Jones(1985): *World Trade and Payments*, 4th ed.,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Toronto.
- Cheong, Young-Rok(1999): “FDI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 Case of NEAR,” *Global Economic Review*, 28, 4, 50~69.
- Fung, K. C., H. Iizaka, H. K. Kim, and A. Siu(1999): “Determinants of U.S. and Japanese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Unpublished Working Paper.
- _____(2002): “Korean, Japanese and Taiwanese Direct Investment in China,” Unpublished Paper.
- Gillis, Perkins, and Snodgrass Roemer(1996): *Economics of Development*, 4th ed.,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 Hanson, G., R. Mataloni, and M. Slaughter(2001): “Expansion Strategies of U.S Multinational Firms,” Mimeo, University of Michigan.
- Helpman, E., and P. Krugman(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Cambridge, MIT Press.
- Krugman, Paul R., and Maurice Obstfeld(2003): *International Economics*, 6th ed., Addison Wesley, Boston.
- Lipsey, R. E.(1999): “The Role of FDI i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Martin Feldstein(e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07-362.
- _____(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Operation of Multinational Firms,” Mimeo, Queens Unieversity.
- Markusen, J. R.(1995): “The Bounda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9**, 169-189.
- Markusen, J. R., and K. E. Maskus(2001): “General-Equilibrium Approaches to the Multinational Firm: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8334**.
- OECD(2000): “Main Determinants and Impacts of FDI on China’s Economy,”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o. **2000/4**, OECD.
- UNCTAD(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Geneva, UNCTAD.
- _____(2005):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Geneva, UNCTAD.